

케냐 사파리 투어

글. 김지완 SBS 보도기술팀

어린 시절 TV 채널을 돌리면서 동물의 왕국이 나오면 ‘이렇게 재미없는 걸 누가 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장수 프로그램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만화 돌리에서 고길동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 것이라 했는데, 나 역시 나이가 들어서인지 옛날 동물의 왕국을 애청하시던 아버지처럼 요즘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눈을 떼지 못하고 몰입하곤 한다. 복잡한 인간 세계를 벗어나 오로지 약육강식의 대자연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땅! 동물의 왕 사자가 맹렬하게 먹이 사냥을 하는 모습, 평화로운 대초원의 모습, 누구나 한 번은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지만 웬지 모를 두려움과 머나먼 거리에 망설이곤 한다. 하지만 더 늦으면 영영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 이번에는 사파리다. 하쿠나마타타!”

(※ ‘하쿠나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문제없어’이다.)

케냐, 여행하기 좋은가?

케냐는 남한 면적의 6배의 국토에 42개 부족이 모여 만든 부족국가로 시작하여, 1963년 독립을 선포하여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70년 넘게 영국의 식민지하에 있었다. 영국 식민지의 영향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여행 중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없다. 국토가 적도에 걸쳐 있어서 꽤 더울 것 같지만, 해발고도가 대부분 1,500~2000m로 높아 연평균 기온이 16도로 온화한 편이

라 여행 중 강렬한 햇빛만 피하면 쾌적한 느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케냐는 여타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위험한 지역에만 가지 않는다면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다. 사파리 투어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이다. 자,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가? 동물의 왕국을 내 눈앞에서 리얼하게 보고 싶은가? 그럼 떠나자, 케냐로!

출발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예방접종 _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 여행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는 황열, 말라리아, 콜레라, A, B형 간염 등이 있으며, 황열 예방접종은 필수로 접종하고, 증명서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심사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끔 요구하는데, 없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필자는 황열과 콜레라 2가지 예방접종을 했다.

비자 _ 케냐는 비자를 필요로 한다. 도착 비자도 있지만 수속이 오래 걸리고, 신청자도 많기 때문에 입국 심사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단수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발급비용은 52.53달러이고, 케

나 비자 발급 홈페이지(www.evisa.go.ke)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사항은 1. 결제를 위한 카드, 2. 여권 사진(5.5cm x 5.5cm) 파일, 3. 여권 사본 파일, 4. 숙박시설 예약증 등이 필요하다. 케냐 이외에 르완다, 우간다도 함께 갈 예정이라면 동아프리카 여행 비자(EATV : EAST AFRICA TOURIST VISA)를 신청하면 3국을 90일간 여행할 수 있다. 동아프리카 여행 비자는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케냐 대사관 홈페이지(www.kenya-embassy.or.kr)를 참조하시길.

e-비자를 신청할 때는 케냐 입국 최소 3주 전에 신청하도록 권장한다. 홈페이지 관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 처리되면 비자 발급 승인 소요 기간이 보통 2~3일 정도이지만, 가끔 에러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필자도 카드사의 결제 승인은 났는데, 홈페이지에는 발급 비용 미지급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와 케냐 이민국에 이메일을 몇 번이나 보내서 2주 만에 해결을 했다.

어플 _ 케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uber, taxify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심을 구매해야 하는데 공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승차 공유 서비스 어플은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공항에서 교통비를 환전할 필요가 없다. 나이로비 도심을 제외하고는 데이터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구글 오프라인 지도나 MAPS.ME 앱 지도를 미리 다운받아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

챙겨야 할 물품

모기 퇴치제 _ 아프리카에서는 모기를 매개로 하는 전염병들이 많아서 되도록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몸에 바르는 기피제나 모기향, 스프레이 살충제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사파리 캠프에 보통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멍이 있는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취침 시에 모기로부터 안전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망원경 _ 사파리 투어 중에 동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을 때 필요하다. 보통은 사파리 차량 앞에서 동물들을 만나지만 나무 뒤나 원거리의 초식 동물 표정을 관찰하고 싶다면 꼭 챙기길 바란다. DSLR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사진 촬영하는 사파리 관광객들도 많다.

손전등 _ 사파리 캠프에는 발전기 돌리는 시간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캠프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는 한다. 가끔 나이로비 시내에서도 정전이 되므로 손전등은 필수.

비상약 _ 일반적인 해외여행에서도 비상약은 필수이지만 사파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서 큰 병원이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까지는 차량으로 6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상약이 꼭 필요하다. 본인 몸에 필요한 약은 충분히 챙기길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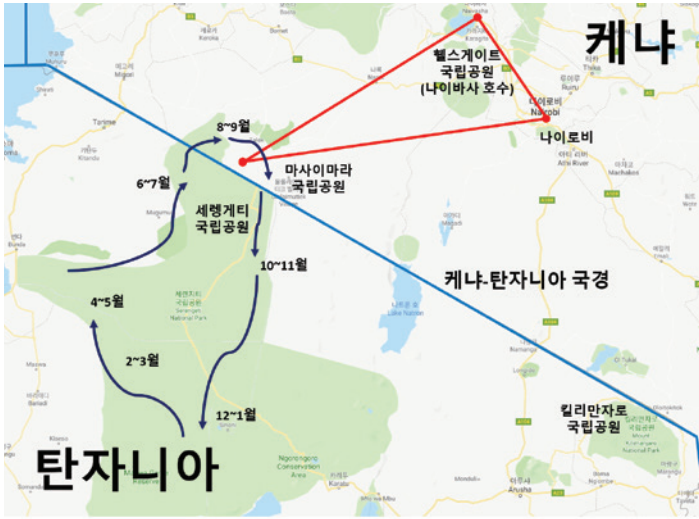
보온을 위한 옷 _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항상 덥다’이지만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하다. 바람막이와 경량 패딩 정도는 꼭 챙길 것.

챙기지 말아야 할 물품

케냐는 비닐봉지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법적으로 비닐봉지 사용, 제조,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최대 3만8천 달러 벌금 또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비닐봉지를 소지한 여행객들은 모두 공



워킹 투어



필자의 여행 루트 및 초식 동물 이동 경로

항에 맡기고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비닐봉지 소지를 자제하고, 꼭 필요하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자제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전 및 물가

케냐 화폐는 한국에서 환전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달러로 우선 교환하고, 공항이나 나이로비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 환율은 약 1실링=11.2원 정도이다. 단위가 큰 지폐일수록 환율을 높게 쳐준다. 다수의 관광지에서는 입장료나 팁 등을 유로나 달러로 받기도 한다. 17km,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차량 공유 서비스 가격은 500~600실링(5,600원~6,720원) 정도, 맥주 500mL 한 캔 180실링(2,010원), 먹는 물 500mL 120실링(1,340원), JAVA 케냐 AA 커피 원두 375g 862실링(9,650원) 정도로 개인적으로 느낀 마트 물가는 많이 저렴하지 않았다.

여행 일정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케냐에 4박 5일간 있으면서, 1일 차 수도 나이로비 시내 투어, 코끼리 고아원, 기린센터 방문, 2~3일 차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4일 차 나이바샤 호수 국립공원, 5일 차 헬스게이트 국립공원 사파리 투어를 진행했다.

인천-나이로비 직항노선이 2012년부터 운행이 되다가 2014년 8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설 2년 만에 중단이 되었다. 케냐의 관문 공항인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통 방콕이나 몌바이, 두바이를 많이 경유한다. 필자는 방콕을 경유하여 나이로비로 입국했다. (인천-방콕 6시간, 방콕-나이로비 9시간 소요) 인천-방콕-나이로비 비행기 샀은 1인 왕복 120만 원에 구매했다.

사파리 투어 예약

첫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날 출발할 사파리 투어를 신청하였다. '사파리'는 스와힐리어로 '사냥을 위한 여행'이

나이로비 시내





나이바샤 호수

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차량을 타고 동물 구경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게임 드라이브라고 한다. (※ 지면에서는 사파리라고 하겠다.) 케냐에서는 사파리를 위한 수많은 여행사가 있는데, 그중 블루마운틴 여행사와 빅타임 여행사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런 여행사는 사파리 투어 운영사가 아니라 모객사라서 같이 투어할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여행사와 인원을 맞춘다. 따라서 어느 여행사에서 예약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고, 흥정을 통해서 어디서 좀 더 싸게 예약하느냐가 관건이다. 워낙 여행사들이 많아서 출발 전날 여행사에 찾아가서 투어 신청을 해도 된다. 필자는 블루마운틴 여행사에서 마사이라 국립공원+헬스 게이트 국립공원(나이바샤 호수 국립공원)을 여행하는 3박

4일 사파리 투어를 1인 400달러(홈페이지 공식가격 450달러)에 신청하였다. 한국인 가격으로 할인했고, 마시는 물을 옵션으로 넣었다. 사파리 투어 중에 물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비싸게 사 먹어야 한다. 따라서 투어 옵션에 먹는 물을 제공하는 옵션을 흥정해서 넣든지, 나이로비 시내 마트에서 물을 충분히 사서 투어를 시작해야 한다. 투어 계약 시에는 반드시 투어 내용 및 옵션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모객사와의 계약이 운영사에 통보되지 않거나 정확한 내용이 없으면, 운영사 가이드가 본인 마음대로 투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투어 차량은 보통 8명을 채워서 움직인다. 따라서 여행 가방이 크면 차량에 실기가 힘들어 여행사나 호텔에 맡겨야 한다. 우리 일행은 3박 4일 사파리를 위한 짐만 간단히 챙기고, 나머지는 호텔에 맡겼다.

코끼리 고아원

코끼리 고아원 방문으로 케냐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코끼리 고아원은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극한알바로 아기코끼리 돌보기를 했던 곳이다. 고아 코끼리 구조 및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나이로비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아기코끼리는 보통 생후 3개월까지는 어미젖을 먹고, 3~4살까지는 어미의 전적인 보호 아래 함께 지내야 한다. 코끼리 고아원에서는 어미를 잃은 고아 코끼리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곳이다. 귀여운 아기코끼리들이 우유를 먹고, 진흙 목욕을 하며 신나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버팔로와 사파리 차량





코끼리 고아원에서 보호를 받는 아기코끼리



코끼리 무리

볼 수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만 오픈하므로 시간을 잘 지켜서 가야 한다. 입장료는 500 실링이며, 기부금 모집을 위해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www.sheldrickwildlifetrust.org)

기린센터

코끼리 고아원 방문 다음으로 기린센터로 향했다. 코끼리 고아원과 기린센터는 나이로비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두 곳을 같이 묶어서 반나절 정도면 둘러 볼 수 있다. 기린센터는 아프리카 멸종위기 야생 동물 기금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야생 동물의 환경에 대해 교육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린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만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이며, 입장료는 1,000실링이다. (www.giraffecenter.org)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기린센터의 기린

사파리 투어 때 지켜야 할 수칙

절대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성을 잃게 만들어서 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다. 사파리 투어를 하다보면,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고, 힘없어 보이는 동물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인간의 잣대로 '자비(?)'를 베풀지 말 것.

가이드 지시 없이 절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들은 사파리 차량을 보아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갑자기 돌변하여 공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이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창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 점심 식



기린센터 풍경

사나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해서 잠시 내릴 때도 가이드가 주변의 안전을 몇 번이고 확인하니, 긴장을 늦추지 말 것.

도로 이동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맬 것.

나이로비에서 마사이마라 국립공원까지는 차량으로 6시간 정도 걸린다. 오가는 길 곳곳에 교통경찰이 안전벨트는 매고 있는지,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지 수시 검문을 한다. 또한 국립공원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도시 나루까지는 포장도로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비포장도로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량 루프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끝없이 펼쳐지는 아프리카의 초원은 동물들의 천국이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살면서, 생존을 위해 끝없이 투쟁하는 전쟁터이기도 하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면적은 1,510km²로 제주도 1,848km²와 비슷함)은 국경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의 초원이다. 초식동물은 건기, 우기에 따라 풀이 많이 자라는 충분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계절에 따라 대이동을 한다. 필자가 투어를 했던 1월 초는 동물들이 세렝게티로 많이 넘어간 상태이지만, 풀이 짧은 동물들을 관찰하기 쉽고, 관광객이 많지 않아 쾌적하게 투어를 즐길 수 있다. 8~9월 성수기에 비해 비교적 동물들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웬만한 동물은 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자.

사파리 차량은 대부분 8인승 승합차나 지프차량이다. 모든 사파리 차량은 동물 관찰을 위해 루프가 열리며, 무전기를 탑재하고 있다. 사파리 차량끼리는 무전기를 통해 맹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며, 넓은 초원을 돌아다닌다. 한 차량이 맹수를 발견해서 정보를 전달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들은 맹수 근처로 모여든다. 도로 표식도 없는 오프로드의 넓은 초원에서 무전으로 위치를 찾는 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지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 현지 가이드들의 영업비밀인 것 같다.

맹수들은 사파리 차량이 접근해도 보는 등 마는 등 한다. 차량이 자기를 해치지도 않고, 먹이를 주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차량 엔진 소리에 편안한 휴식을 방해받아서 그런지 조금 짜증 나는 얼굴인 듯하다. 대부분의 맹수는 낮에는 그늘에서 쉬다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기온이 선



빅 파이프 동물이 그려진 표지판

선해지면 사냥을 한다. 그것도 매일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굶다가 하기 때문에 사냥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TV에서 보는 모습은 수없이 많은 날을 지새워서 얻어낸 영상이라는 것을 이번 사파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동물의 왕국’ 촬영 팀들에게 경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휴식 중인 사자



이동 중인 누



동트는 초원

의를 표한다. 방송국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몸으로 느끼면 이렇게 그들의 노고에 또 감사해진다. 그래도 표범이 나무 위에서 사냥한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은 얻을 수 있었다. 죽었거나 정제된 먹이를 공급받는 동물원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동감, 역동성, 살아 있는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다.

초식동물들은 항상 긴장하며 풀을 뜯는 것 같았다.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느끼면 열심히 식사를 하지만 차량 엔진소리나 멀리 맹수의 모습이 보이면 식사를 멈추고,

반대쪽으로 서서히 걸어서 움직이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맹수를 보는 것처럼 차량 바로 앞에서 초식 동물을 보기는 조금 힘들다.

사파리 궁금증 일문일답

국립공원에 가야만 동물들을 볼 수 있나?

국립공원은 동물들을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며, 공원에 동물들을 가두어 놓은 곳은 아니다. 따라서 차를 타고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길옆에 종종 원숭이, 얼룩말, 가젤 등도 볼 수 있다. 대도시 시내만 아니면 어디서든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이다. 그럼



동물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파리 차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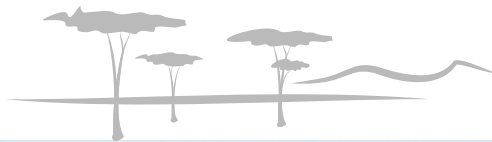
맹수들도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맹수들은 초식동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서식지를 초식동물과 같이 공유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보기 힘든 동물은?

‘빅파이버’는 사냥꾼들이 만든 말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냥하기 위험하고 어려운 5가지 동물을 지칭하며 코끼리, 사자, 버팔로, 표범, 코뿔소를 말한다. 코뿔소는 위의 동물 중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동물로 코뿔을 약재로 얻으려는 밀렵꾼들 때문에 엄청난 죽임을 당해서 지금은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따라서 초원에서 가장 보기 힘든 동물이다. 우리 일행도 사파리 투어 동안 코뿔소를 보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았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이 싸울 일이 없다.”가 정답이다. 사는 지역이나 좋아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자는 보통 초원 지대에 살고 호랑이는 숲에 사는 경우가 많다. 서식지가 거의 겹치지 않아



엄마코끼리와 아기코끼리



온순해 보이지만 위험한 동물인 하마 무리

서 만날 확률이 극도로 낮다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과 사례를 보면 동물원 등에서 사자가 이긴 경우도 있고, 호랑이가 이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증론은 상황에 따라, 각 개체의 강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궁금증은 놓아두어도 될듯하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동물은?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답은 하마. 아프리카에서 하마의 공격을 받고 매년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한다. 아프리카에서 매년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250명 정도이니 훨씬 많은 수치다. (A Top 10 List of Africa's Most Dangerous Animals 기사 참조, www.tripsavvy.com/africas-most-dangerous-animals-1454125) 하마는 초식 동물이지만 자기 서식지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이유 없이 공격을 한다. 시속 40km 속도로 달려들어 1t 가까이 되는 악력으로 사람을 물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얼룩말은 왜 무늬가 얼룩일까?

얼룩말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 털이 가장 짧기에 쇠파리 공격에 취약하다고 한다. 전염병을 옮기는 쇠파리를 피하고자 흑백무늬가 발달했다고 한다. 쇠파리는 흑백무늬를 회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먹이 활동을 하는 초식 동물들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 위치한 캠프 전경



케냐 현지 식사

사파리 캠프

국립공원 내에서는 숙식할 수 없어서, 하루 사파리 일정이 끝나면 국립공원 외부에 있는 캠프로 돌아오게 된다. 사파리 캠프는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 모여 있으며, 여행사와 연계되어 있다. 전기와 수도 기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은 길어서 탱크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전기는 발전기를 하루에 3~4시간 정도 돌려서 사용한다. 캠프 주인이 뷔페식으로 아침과 저녁을 준비해준다. 점심은 캠프에서 챙겨주는 도시락으로 사파리 초원에서 해결한다. 야생 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마사이족 가드가 밤새 캠프를 지키고 있다. 캠프 주변에 마사이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 양, 염소 등을 기르거나, 사파리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관광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마을로 데리고 가서, 마사이 전사의 춤과 주거지를 보여주며, 수 공예품을 강매(?) 한다. 이러한 상술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라이언 킹에서 비비 원숭이 라피키가 심바의 탄생을 밀림 가족에게 알리는 장소의 모티브가 된 헬스게이트 돌산과 용암으로 생성된 협곡

헬스게이트 국립공원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배경이 된 케냐의 국립공원이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으로 온천과 간헐천 등이 있으며 국립공원 안에 지열 발전소도 운영되고 있다.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같이 맹수들이 없어서 사파리 차량을 타지 않고도 직접 걸어 다니며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들은 체력이 되면 자전거로 둘러보기도 한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반나절이면 될 정도로 크기는 크지는 않다. 바로 옆에 나이바샤 호수 국립공원이 있어 보통 두 곳을 같이 묶어서 사파리 투어를 진행한다.



하쿠나마타타!

이번 케냐 여행은 기대했던 만큼 사파리 투어도 즐거웠지만, 케냐 사람들의 낙천적인 모습 또한 매우 인상적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늘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오던 나의 모습과 달리 케냐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매사가 여유로워서 항상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파리 가이드, 택시 운전사, 호텔 직원 등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냐의 동물들은 하늘이 내려 준 소중한 유산이자 축복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아프리카 하면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가득한 불쌍한 나라, 더럽고 위험한 오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다소 부족해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는 그들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케냐 여행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은 마음먹기 마련이라는 그 흔한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